



< STX엔진 전시 부스 >

STX엔진은 5월 28일(수)부터 31(토)까지 부산 벡스코(BEXCO)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양방위산업전(MADEX 2025)에서 수출 미래형 해양 파워 솔루션을 공개한다.

이번 전시에서 STX엔진은 해군 및 해양경찰용 디젤엔진, 추진기, 전자통신 장비 등 해양 플랫폼에 적용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. 특히 필리핀과 페루의 호위함 및 초계함에 탑재된 디젤엔진 실물을 전시하며, K-방산 수출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할 예정이다.

국내 함정 분야에서는 최신 울산급 호위함, 고속함 등에 적용되는 1163시리즈 추진기용 엔진과 잠수함, 구축함 등에 적용되는 4000시리즈 발전기 엔진 및 비상발전기용 엔진도 함께 소개된다.

또한, Surface Drive System인 SeaRex 120S 추진기까지 선보여, 함정용 추진체계의 토탈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.

전자통신장비 부문에서는 독자기술로 개발한 잠수함용 항해 레이더 안테나 세트, 예인음탐기 TASS-MFM도 함께 전시된다. TASS-MFM은 장거리 잠수함 탐지와 중거리 어뢰 탐지에 최적화된 소나 시스템으로,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수출용 예인음탐기 개조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. 동 사업은 수출에 적합한 범용적인 장비를 개발중으로 2027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STX엔진은 해양 감시와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.

STX엔진은 48년 이상 축적된 방위산업용 디젤엔진 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, 국내 해군과 해양경찰에게 높은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주기 및 발전기용 디젤엔진을 안정적으로 국산화 공급하여 명실공히 우리 군의 국토 방위 및 해상 주권 수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.

수십년 간의 축적된 전력화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파워솔루션을 구축해 왔으며, 최근에는 K-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제품과 미래 전장을 대비한 친환경, 스마트 기술 기반의 차세대 전력체계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.

STX엔진 이상수 대표이사는 “MADEX 2025를 통해 자사가 보유한 토탈 해상 방산 솔루션, K-방산 수출 확대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할 계획” 이라며, “앞으로도 국내외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